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

- 진경산수화 100엽을 대상으로 -

강영조** · 배미경***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조경학과

Prospect Behavior in the Analysis of Kyumjae Chung Sun's One Hundred Scenes from the Real Landscape Painting

Kang, Young-Jo** · Bae, Mi-Kyung***

**DongA University, Dept. of Planning and Landscap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Dept. of Planning and Landscap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point of view and prospect behavior occurring in the experience of a painted landscape. This study analyzes one hundred scenes from the 'real landscape painting' by Kyumjae, one of the most famous landscape painters in 18th century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t clarified that Kyumjae's real landscape painting's 100 scenes have many view points such as roads, bridges, pavilions, mansions, towers, terraces, hillsides, bases of mountains, broad flat rocks, brookside, and ferries that are apt to occur in the experience of a landscap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view points are expanded fields of vision, evening and night scenes, edges of landforms and structures from which to improve ones vantage point.

2. It showed that 99 out of real landscape painting's 100 scenes depict a view point 'to look' and 79 of 'to look through', 73 of 'look around' and 24 of 'to look over'.

3. It showed that real landscape painting's 100 scenes depict that the view point 'to look' is mainly upon a road from which people are looking over an elevated landscape such as the top of a mountain or rockwall. The view behaviors of looking down are depict 15 pavilions, 14 mansions, 2 broad rocks and 10

*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mountain tops on which people experience landscapes such as fields, rural communities and streams. The view behaviors to look depict 33 ships, 24 roads, 24 pavilions, 19 mansions and 12 terraces on which people experience landscapes such as distant views of mountains, rivers and landscapes. The view behaviors to look around to obtain orientation of landscape are depict 16 pavilions, 10 mountaintops. To glimpse on the way of journey depict 33 ships and 29 roads. To look over depict 11 mansions and 6 pavilions on which experience borrows the landscape. To look through landscapes such as rivers, mountains and rockwalls depict 15 roads, 14 pavilions and 11 mansions. To exchange looks depict 30 ships, 14 roads, 12 pavilions and 12 mansions.

We expect that these results might give clues toward the experience of landscapes and the practice of landscape design methods which select viewpoints, and in the design of view points suitable to prospect behaviors.

Key Words : Prospect Behavior, View Point, Real Landscape Painting, Occurrence of Landscape, Experience of Landscape

1. 서론

1. 연구의 목적

경관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황기원(1987)은 경관을 환경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한 관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환경을 정관할 경우에 형성되는 이미지로 정의한다. 일본의 경관학자 시노하라 오사무는 “경관은 환경의 조망”(Sinohara, 1982: 3)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가장 간명하고 또 경관설계의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일본이 경관학자 나카무라 요시오다. 그는 “경관이라는 현상은 대지의 시각상과 인간 정신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특이한 세계상이다. 그것은 공간의 객관적인 성질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정신현상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간에서 발생하여 인식과 평가가 혼연 일체가 되어, 현전하는 공간의 시각상을 핵으로 하여 성립하는 이미지다.”(申村, 1982: 1)라고 정의했다.

이들 정의를 경관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이렇다. 경관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시각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시각상이 인상 깊게 체험될 때 경관이 발생한다. 고정된 환경 속을 이동하는 인간은 눈앞에 계기적으로 펼쳐지는 시각상을 연속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일순 인상적

인 경관을 체험하게 된다. 이 때가 경관이 발생하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서 시각상으로서 환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이 양자가 경관이라고 하는 현상을 성립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관설계의 이론적 검토는 이들 양자를 의도하는 경관체험에 부합하도록 조작하는 수법을 논의하는 일이다. 시노하라도 “경관의 조작은 인간의 조작과 대상의 조작으로 대별된다”(Sinohara, 1982: 50)라고 했다.

바라보여지는 환경으로서 시각상의 조작수법의 개발은 형태적 규제와 통일을 설명하는 수학적 형식의 발견과 구도의 기법과 공간구성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한편 인간의 조작 수법을 폭 넓게 논의 한 것은 기상(氣象)경관의 조작을 다룬 코바야시 토오루(小林亨, 1991)다. 그는 비나 눈, 계절, 시간 등 인간이 직접 조작하기 힘든 경관대상의 설계수법으로 신체감각의 장의 조작, 대상의 조작, 대상상의 조작, 관계의 조작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시선과 시각, 그리고 미각 등 오감의 조작이라고 하는 신체감각의 장의 조작과 신체 기점 다시 말해서 감상자와 대상과의 거리나 시점장의 높이 조작 등 관계의 조작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건축 공간 혹은 정원 등 비교적 한정되고, 고정된 시점장

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승 등 자연풍광지에서는 건축 공간을 벗어난 공간 속을 회유하면서 얻는 계기적 경관체험이 그곳에서의 체험을 인상 깊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상적인 경관의 체험은 이러한 시점의 계기적 변이 가운데에서 문득 경관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과 이 때 발생하는 경관은 그 경관대상에 적합한 조망행동에 의하여 그 체험이 보다 인상 깊은 것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시점 즉, 조망점과 그곳에서 특화된 조망행동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관 설계에 있어서 시점의 조작 수법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강영조, 2001a; 2001b)가 있으나 주로 인간의 심적 공간의 조작에 관심이 있을 뿐 경관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곳에서의 조망행동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이 연구의 성과는 경관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시점과 시점장의 선정과 조망행동에 조응한 공간 설계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서 조망점과 조망행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겸재(謙齋) 정선(鄭勳)의 산수화를 이용하였다. 산수화라고 하는 영상매체를 연구의 재료로 삼은 것은 그것의 기능이 산수의 유람에 있다는 점에 착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북송 시대의 화가 곽희(郭熙: 1020?-1090?)는 중국 3대 화론서 가운데 하나인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임천(林泉)을 사랑하고 구름과 안개를 벗삼으려는 뜻은 꿈속에서도 그리는 바이지만 실제로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은 것은 단절되어 있다. 이럴 때 훌륭한 습씨를 얻어서 산수를 생생하게 그려낸다면 대청이나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서도 천석과 계곡을 즐길 수 있고, (중략). 이것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이 산수를 그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곽희, 1989: 25).

다시 말해서 산수화를 통하여 실제의 산수를 거닐 때와 같은 경관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본 연

구의 재료로 삼은 것이다. 겸재 정선의 그림을 연구의 재료로 한 것은 그가 「임천고치」를 외울 정도로 탐독한 점과 최완수 같은 후세의 미술사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는 점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완수(1993)가 편찬한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에 수록된 100엽을 저본(底本)으로 하였다. 이 그림들은 금강산과 한강주변을 그린 것이다.

2) 조망점의 동정(同定)

곽희는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며 살고 싶은 품격이 있는 곳이라고 단정한다. 산수화는 앞서 말한 대로 천석의 가상유람을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수화를 보면서 마치 그 그림에 그려진 산수를 유람하듯이 보는 것이 산수화 감상법이다. 이를 와유(臥遊)²⁾라고 한다. 누워서 거닌다는 의미다. 곽희는 이렇게 말한다.

“산의 인물은 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산의 누각은 명승을 나타냄이요³⁾”(곽희, 1989: 28).

산에 인물을 그려 놓으면 거기에는 그 인물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음을 암시하고 또 그 그림을 보는 우리는 그 인물이 되어 산중을 소요하는 기분이 된다는 말이다. 그 산수를 거니는 그림 속의 인물은 이윽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자신이 되어 산수 속을 소요하고 있는 듯한 체험을 한다. 그 인물은 대리의 자기(中村, 1982)인 셈이다. 방안에 누워서 대리의 자기가 그림 속을 거니는 즐거움이 와유의 즐거움이다.

유홍준(2001: 214)도 “본래 산수화에서 점경인물이 갖는 중요성은 그 인물이 있어야 현장감이 살아난다”고 하며 산수화에서의 점경인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와유는 인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곽희는 이렇게 말한다.

“물에 나루터와 다리가 있음은 인간의 생활을 나타내는 데에 족하며 물에 고깃배와 낚시대가 보임은 인간의 정취를 나타내는 데에 족하다!”(곽희, 1989: 28).

“산의 누각은 명승을 나타냄이요”라는 말과 함께 그 속에 사람이 들어 있을 만한 공간은 그곳에서 대리의 자기가 가상의 산수체험을 유발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들어 조망점은 인물, 가상의 조망

행동을 유발하는 장소 즉, 길, 다리, 정자 등 건축물, 언덕, 산마루, 산기슭 등 지형의 변환점, 너럭바위, 나무, 배 위 등 실제 조망행위가 묘사되어 있거나 가상의 조망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하였다.³⁾

3) 조망행동의 추출

조망행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출하였다.

하나는 그림에 묘사된 인물의 행동에 주목하였다. 인물의 시선 방향이나 몸짓 그리고 손끝이나 지팡이 등 지시물의 방향을 시선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로 여겼다.

「박생연(朴生淵)」의 조망행동의 분석을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다. 폭포 아래 쪽 「범사정(泛槎亭)」 주변에 갓 쓴 선비 세 사람이 두 명의 시동(侍童)을 거느리고 폭포를 감상하고 있다. 왼편의 한 선비가 손짓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 선비와 시동의 시선이 폭포의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조망행동은 '내려보다'로 판단된다. 그들은 굵은 소나무 등치 '사이로 폭포를 보고' 있다. 시동은 폭포 위로 '올려보고' 있고 선비 한 사람은 폭포 줄기를 그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비의 지팡이의 방향을 따라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그림 1. 조망 행동의 분석 예; 작품명: 박생연(朴生淵)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둘러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사정은 벽이 없어서 누마루에 들어서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을'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속의 인물의 행동과 공간 형상을 조망행동과 관련하여 관찰하여 그 행동을 추출하였다.

II. 결과 및 고찰

1. 조망점의 분포

산수화에서 조망을 즐기고 있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이거나 또는 인물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주변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을 듯이 보이는 조망점은 크게 다섯 종류였다(표 1 참조).

하나는 길이다. 「설평기려(雪坪騎驢)」(그림 2 참조)는 여로에서 조망되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단발령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이나 「삼일포」와 같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모퉁이에 걸려 있는 길은 풍경을 체험하기에 절호의 장소다.

물론 조망점으로서 길은 산모퉁이에 걸려 있는 길 등, 지형적인 특징으로 비롯되므로 그 자체가 조망점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둔다. 길은 분석 대상 그림 100엽 가운데 29엽에서 조망점으로 추출되었다.

다음은 건조물이다. 교량이나 정자, 누각, 당 등의 건조물은 산수화 속에서 조망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이다. 광희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악후월(小岳候月)」(그림 3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상자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또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명승임을 암시하는 이들 시설은 시야가 열려 있고 강이나 골 등을

표 1. 진경산수화에 묘사된 조망점

조망점 개수	길		건조물						산지형						수변			기타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 바위	산모 퉁이	산 기슭	산 중턱	산 등성	산 정상	바위 절벽	폭포 주변	개울 가	나무 터	숲	방안	선상
조망점	29	6	25	19	7	7	12	3	6	1	5	2	1	10	9	3	1	7	4	9	33
관찰자와 조망점	11	1	4	2	-	1	3	1	4	1	2	1	1	2	6	2	1	7	2	3	21

부감할 수 있는 듯이 보이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분석 대상 그림 100엽 가운데 정자가 24엽, 누각이 26엽, 대가 12엽에서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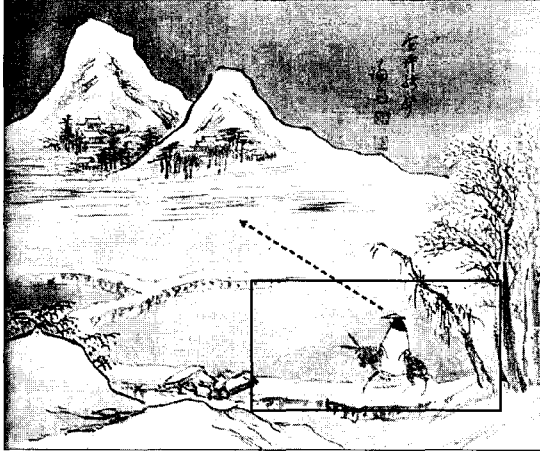


그림 2. 조망점으로서 길; 작품명: 설평기려(雪坪騎驢)



그림 3. 조망점으로서 누(樓); 작품명: 소악후월(小岳候月)

세 번째는 산지형이다. 바위 절벽, 산마루, 산기슭, 너럭바위 등 주변 풍경을 일망할 수 있는 높은 곳이나 시각변환점이다. 특히 산정상부나 바위 절벽 등은 지형의 끄트머리이거나 중심으로 이들 장소는 폐쇄된 시계가 갑자기 열린 곳이며 조망 대상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분석 대상 그림 100엽 가운데 산정상부는 10엽, 너럭바위는 6엽의 그림에서 관찰되었다.

네 번째는 수변공간으로 개울가나 나루터가 조망점

으로 추출되었다. 「시화상간(詩畫相看)」(그림 4 참조) 어느 것이든 지형이나 건조물에 의하여 시계가 폐쇄되어 있지 않고 시야가 넓은 곳이다. 산지형의 조망점과 마찬가지로 지형의 말단부로서 저쪽의 영역에 있는 조망대상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나루터는 7엽의 그림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4. 조망점으로서 개울가; 작품명: 시화상간(詩畫相看)

마지막으로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가 조망점으로 관찰되었다. 총33엽의 그림에 조망점으로서 배가 묘사되었다. 산수화가 산과 물의 그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이나 바다 풍경의 묘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의 풍경 체험에서 축적된 배 위에서 보는 풍경의 이채로운 체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사방이 푹 터여 있고 또 절벽이나 강촌의 풍경이 평소에 보던 시선과는 다른 방향, 즉 비일상적 시선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조망처가 배 위에서라는 점을 알려 준다.

이들 조망점의 공간적인 특성은 시계가 갑자기 열린 곳 즉 시각변환점, 비일상적 시선, 지형의 끄트머리, 양호한 부감경을 얻을 수 있는 건조물 등이다.

2. 조망행동의 분석과 출현빈도

1) 국어사전을 통해 수집한 조망행동

조망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국어사전에서 어간을 '보다'로 하는 동사를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경관의 체험과 무관하게 보이는 '제려보다', '살피보다'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그림에서 판단하기 힘든 '훑어보다' 등의 조망행동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경관의 체험과 관련된 조망 행동으로 시선의 고저방향을 변별하는 '올려보다'와 '내려보다', 시 대상에 대한 응시 시간의 차이에 착안한 '언뜻보다, 지나쳐보다', 그리고 시선에 방향에 대한 시각적 장애물을 존재를 지시하는 '넘어보다, 사이로 보다', 그리고 보는 시선과 보여지는 대상에서의 시선이 서로 착종(錯綜)하는 '마주보다'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특이한 조망 행동을 판독하기 어려운 것은 '바라보다'라고 하였다.

각 조망행동의 특성과 출현 빈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조망행동의 출현 빈도

가장 많이 관찰된 조망 행동은 '바라보다'다. 전체 100엽의 그림 가운데 99엽의 그림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조망시설이 관찰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로 보다'가 79엽에서 관찰되었다. 비교적 '사이로 보다'가 많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 것은 따로 조망점과 조망행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겠지만, 조망점이 곧잘 주위가 시각적 장애물로 가려져 있어 시야가 폐쇄된 곳이라는 것을 말한다. '둘러보다'는 73엽에서 관찰되었다. 가장 낮은 빈도로 출현한 조망행동은 '넘어보다'로 24엽에서 관찰되었다(표 2 참조).

표 2. 진경신수회에서 관찰된 조망행동의 수 (단위: 엽수)

조망행동	조망행태의 유부		
	있음	없음	합계
올려보다	42	58	100
내려보다	66	34	100
바라보다	99	1	100
둘러보다	73	27	100
언뜻 보다	62	38	100
넘어보다	24	76	100
사이로 보다	79	21	100
마주보다	46	54	100

3. 조망행동과 조망점과의 관계

1) 올려보다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시대상을 바라볼 때 시선은 눈 높이보다 올라가게 된다. 이때 우리의 조망행동은 '올려보다'가 된다. 일반적으로 양감(仰瞰), 혹은 양망(仰望)이라고 하고 이 때 보이는 경관은 양감경 또는 양망경이라고 한다.

올려보고 있는 조망행동은 「상계입암(雙溪立岩)」에서 보다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흐르는 상계 개울 턱에 두 명의 선비는 개울 건너편에 높이 우뚝 솟은 바위를 보고 있다. 선비의 시선은 목을 한껏 젖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늘 높은 솟은 바위 그 끝에 가있는 듯하다. 이때 선비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올려보다'다(그림 5 참조).

길가에 높이 솟은 암봉이나 물가의 너럭바위에서 기암절승을 체험할 때 취하는 행동이다. 또 수면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단애 위의 정자를 볼 때 시선의 방향은 올려보고 있다.

행로(行路) 주변에 높이 솟은 암봉을 볼 수 있는 곳에서나 선유(船遊)를 즐기는 유람자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올려보는 조망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된 것은 '길'이다. 연구 대상으로 한 껌재의 그림이 대개 산악의 기암절벽이나 암봉 혹은 단애를 볼거리로 하고 있고 또 이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거기로 접근하는 길 때문에 길에서 올려보는 조망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2) 내려보다

조망하는 사람보다 낮은 곳에 있는 조망대상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된다. 이 때 우리의 조망행동은 '내려보다'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감(俯瞰)이라고 하고 이 때 보이는 경관을 부감경이라고 한다.

'내려보다'는 「용공동구(龍貢洞口)」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명의 선비가 급하게 흐르는 계류를 직벽 끄트머리에 앉아 보고 있다. 그들의 위치는 조망대상인 급류에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므로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 때 '내려보다'라는 조망행동으로 급류를

보고 있다(그림 5 참조).

내려보다라는 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곳은 정자(15엽), 누(14엽), 너럭바위(9엽), 산봉우리(8엽)의 순이다(표 3 참조). 내려보다라는 조망행동은 대개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이나 절벽바위 위에 세워진 정(亭)과 같은 건축물에서 수면이나 들 등 낮은 곳의 풍경을 조망할 때의 행동인 셈이다.

3) 바라보다

시선을 조망대상을 향하는 가장 단순한 조망행동이다. 시선의 방향은 대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으므로 대지와 평행하여 있으며 이때 보이는 경관은 수평경으로 부를 수 있다.

「단발령망금강산(斷髮嶺望金剛山)」에서 '바라보다'라는 조망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일군의 유람객이 단발령에 올라서서 멀리 평면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금강산의 암봉들을 보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대개 동일한 고도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의 산마루를 보고 있지만 시선을 위로 향하거나 목을 움직여서 경관대상을 올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그림 5 참조). 대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이 조망행동은 경관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의식인 '거리 두기'를 하기 쉬운 조망행동이다.

바라보다는 배 위(29엽), 길(24엽), 정자(24엽), 누(19엽), 대(12엽)의 순으로 관찰되었다(표 3 참조). 마루에서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금강산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경우나 나루터에서 강변의 마을과 강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는 경우와 같이 공간적으로 시선의 확장이 가능한 곳에서 바라보다라는 조망행동이 유발되기 쉽다.

4) 둘러보다

시야가 개방되어 있으며 특정한 조망대상이 없거나 적은 조망점에서 관찰되는 조망행동이다. 시선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주위를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다.

「세검정(洗劍亭)」은 둘러보다라는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그림이다. 물이 백색 화강암반 위를 쏟아내며 여울져 내려가는 냇가의 너럭바위 위에 정자 세검

정이 세워져 있다. 물줄기는 너럭바위 부분에 이르러서는 크게 휘감아 돌아 내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너럭바위는 물에 바싹 다가선 듯이 보인다. 중앙부에 위치한 세검정(洗劍亭)에는 한 사람이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방으로 트인 건축물이므로 시선은 곧잘 주위로 이동하기도 했을 듯하다. 마치 둘러싸인 수려한 산세와 푸른 녹음 그리고 맑은 시냇물을 둘러보며 감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이 시선을 어느 한 방향으로 강요하지 않은 건축입면에서 야기되는 조망행동이 '둘러보다'다.

둘러보다는 정자(16엽), 산봉우리(10엽)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표 3 참조). 금강산의 주봉(主峰)인 비로봉(毘盧峰)과 같이 모든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산의 정상부나 교량, 바위절벽 위에 지어진 정(亭)이나 각(閣)등에서 둘러보는 조망행위가 나타난다. 둘러보다라는 조망행동은 관찰자가 주위의 정보를 계기적으로 축적하는 행동이므로 산봉우리와 같은 시계가 탁월한 장소에서는 관찰자가 정위하고 있는 장소와 다른 장소와의 관계 즉, 지리감각을 획득하기 쉽다.

5) 언뜻 보다, 지나쳐보다

올려보거나 내려보다 혹은 둘러보다라는 조망행동은 어느 편인가 하면 그 조망점에서 비교적 일정한 시간을 머무르면서 행하는 조망행동이다. 그러나 이동하는 길 위에서나 배 위에서는 시점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빠르기로 조망대상도 스쳐지나 간다. 이 때 경관을 응시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취하는 것이 '언뜻 보다 혹은 지나쳐보다'라는 조망행동이다.

「통천문암(通川門岩)」에서 이런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두 명의 선비가 각각 나귀를 타고 해변을 지나고 있다. 거대한 절벽 사이로 길이 나 있다. 마치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드는 초입처럼 보인다. 그래서 문암이라고 이름했을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두 선비 중 하나는 나귀등 위에서 문암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문암에 들어서서 지나온 절벽 위를 뒤돌아보고 있다. 고개를 들어올려 쳐다보는 행동은 나귀의 걸음이 문암을 지나치면서 그 절벽 위 소나무는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 둘 것이다. 그는 나귀 위에서 소나무를 '언뜻 보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이런 조망행동은 길(29엽)과 배(29엽)에서 주로 관찰되었다(표 3 참조).

6) 넘어보다

조망 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사이에 적당한 높이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경우 시선이 그 장애물을 넘어 조망대상을 바라보는 행동이다.

누마루 위에는 선비 한 사람이 난간에 기대앉아 담 너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중해청조(宗海聽潮)」에서 이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담 너머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개 산이나 대 등 시각적으로 우세한 시대상을 볼 때 취하는 조망행동이다(그림 5 참조).

‘넘어보다’는 누(11엽), 정자(6엽) 등 건조물 안에서 외부로 바라볼 때의 조망행동이다. 건조물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건조물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 예를 들면 담이나 수목 등으로 시계가 차단된다. 시계가 장애물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거리의 연속감도 담이나 수목에서 차단된다. 멀리 보이는 경관은 거리적 연속감이 상실된 채로 차단물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 체험하는 경관을 차경이라고 한다.

7) 사이로 보다

조망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사이에 투과성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이로 멀리 있는 시대상을 조망할 때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이 발생한다.

「정자연(丁字淵)」에서 이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깊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둔치에

소나무가 군생하고 있다. 초당 몇 채가 그 소나무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초당은 그 속에서 정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와유를 유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초당에서 정자연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인다(그림 5 참조).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조망점은 길(15엽), 정자(14엽), 누(11엽)의 순이다(표 3 참조). 길가에 서 있는 숲의 나무 기둥이나 가지사이로 바라보거나 시선 가까이 존재하는 암벽 사이로 바라보이는 절경들을 체험할 때 이러한 사이로 보다 라는 조망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로 보다 라는 조망행동에는 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역시 멀리 있는 경물과의 거리감이 상실되어 보여 넘어보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경을 체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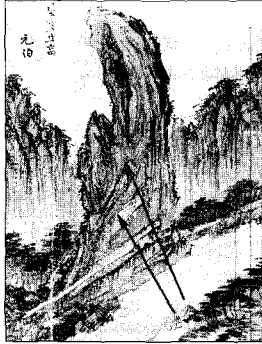
8) 마주보다

조망대상과 조망하는 사람이 서로 보고 보여지는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망행동이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를 그린 「죽서루(竹西樓)」에서 이와 같은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오십천 위에 떠 있는 거룻배에서는 선비 세 명이 죽서루를 올려보고 있다. 죽서루 안에서도 기생 셋이 이야기를 나누며 죽서루를 올려보고 있는 선비를 바라보고 있다. 서로 보고 보여지는 조망행동이다(그림 5 참조).

마주보다라는 조망행동은 배(27엽), 길(14엽), 정자(12엽), 누(12엽)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여기와 저기로 구분된 공간에서 저기에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 시선을 교응하는 행위이다. 와유를 유발하기 쉬운 조망행동이다.

표 3. 진경산수화에 묘사된 조망점과 조망행동의 상대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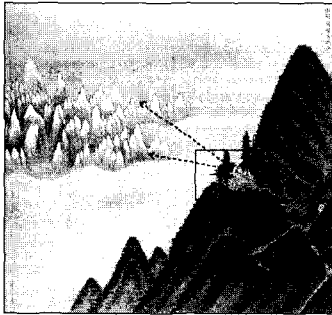
조망점 조망행태	길	교량	정	누	각	당	대	언덕	너럭 바위	산모 퉁이	산 기슭	산 중턱	산 등성	산 정상	바위 절벽	폭포 주변	개울 가	나무	숲	집	배위	합계
올려보다	13	3	3	1	2	0	2	0	3	0	1	0	0	0	2	3	0	0	2	0	12	47
내려보다	3	3	15	14	5	4	6	1	2	0	0	2	1	10	10	1	0	0	0	0	0	77
바라보다	24	5	24	19	7	7	12	3	6	1	5	2	1	10	9	3	1	7	4	9	33	192
둘러보다	0	6	16	8	5	2	7	2	3	1	0	0	1	10	3	2	0	6	0	0	6	78
언뜻 보다	29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33	63
넘어보다	1	3	6	11	4	1	0	0	0	0	1	0	0	1	0	0	0	0	0	2	0	30
사이로 보다	15	4	14	11	7	5	6	0	3	1	4	2	1	1	4	1	0	0	4	5	3	91
마주보다	14	4	12	12	5	3	5	2	2	0	1	2	1	1	6	1	0	6	4	0	36	111
합계	99	28	90	76	35	22	38	8	19	3	13	8	5	33	34	11	1	19	14	16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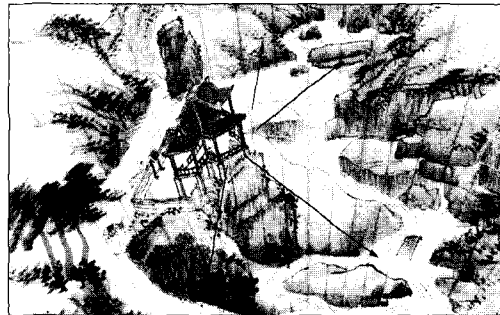
a : 올려보다: 雙溪立岩



b : 내려보다: 龍貢洞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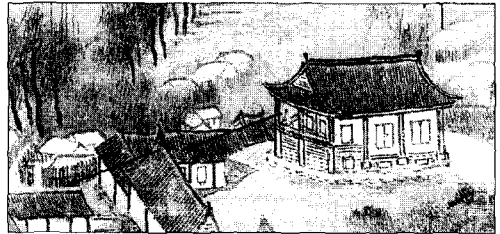
c : 바라보다: 斷髮嶺望金剛山



d : 둘러보다: 洗劍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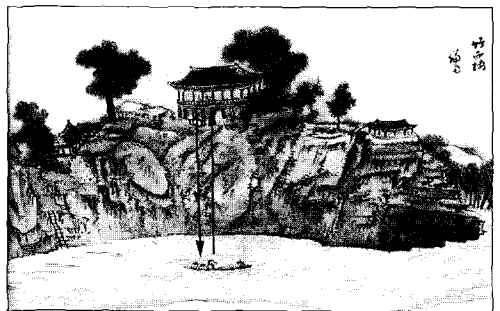
e : 언뜻 보다: 通川門



f : 넘어보다: 宗海聽潮



g : 사이로 보다: 丁字淵



h : 마주보다: 竹西樓

그림 5.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

III. 결론

1. 조망점의 분포 특성

산수화에서 조망을 즐기고 있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이거나 또는 인물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주변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을 듯이 보이는 조망점은 길과 교량, 정자, 누, 각 등 건조물 그리고 바위 절벽, 산마루, 산기슭, 너럭바위 등 산지형으로 주변 풍경을 일망할 수 있는 높은 곳이나 시각변환점과 수변공간으로 개울가나 나무터가 조망점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가 조망점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조망점의 공간적인 특성은 시계가 갑자기 열린 곳 즉 시각변환점, 비일상적 시선, 지형의 끄트머리, 양호한 부감경을 얻을 수 있는 건조물 등이다.

2. 조망행동의 출현 빈도

가장 많이 관찰된 조망 행동은 '바라보다'다. 전체 100엽의 그림 가운데 99엽의 그림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조망시설이 관찰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로 보다'가 79엽에서 관찰되었다. 비교적 '사이로 보다'가 많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 것은 따로 조망점과 조망행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겠지만, 조망점이 곧잘 주위가 시각적 장애물로 가려져 있어 시야가 폐쇄된 곳이라는 것을 말한다. '둘러보다'는 73엽에서 관찰되었다. 가장 낮은 빈도로 출현한 조망행동은 '넘어보다'로 24엽에서 관찰되었다.

3. 조망행동과 조망점과의 관계

1) 올려보다

올려보는 조망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된 것은 '길'이

표 4. 조망행동에 특화된 조망점과 그 특성

조망행태	모식도	특화된 조망점	조망특성
올려보다		길	상대적으로 고소에 있는 경물을 조망할 때의 행동. 양망경
내려보다		정자, 누, 너럭바위, 산봉우리	대개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이나 절벽바위 위에 세워진 정(亭)과 같은 건축물에서 수면이나 들 등 낮은 곳의 풍경을 조망할 때의 행동. 부감경
바라보다		배 위, 길, 정자, 누, 대	시계가 멀고 시야가 넓은 경물을 조망할 때의 행동. 전경관(파노라믹 경관)
둘러보다		둘러보다는 정자, 산봉우리	계기적으로 경물을 조망하는 행동. 지리감각
언뜻 보다 지나쳐보다		길, 배	이동하는 길 위에서나 배 위에서는 시점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속도로 지나가는 경물을 조망할 때의 행동. 일瞥(一瞥)
넘어보다		누, 정자	담이나 수목 등 시계를 차단하는 장애물 너머에 있는 경물을 조망하는 행동. 차경
사이로 보다		길, 정자, 누	길가에 서 있는 숲의 나무 기둥이나 가지사이로 바라보거나 시선 가까이 존재하는 암벽 사이로 바라보이는 경물을 조망하는 행동. 차경
마주보다		배, 길, 정자, 누	보고 보여지는 관계. 대면, 와유

다. 연구 대상으로 한 겸재의 그림이 대개 산악의 기암 절벽이나 행동 혹은 단애를 볼거리로 하고 있고 또 이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거기로 접근하는 길을 그려 놓은 것으로 인하여 길에서 올려보는 조망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2) 내려보다

내려보다라는 행동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곳은 정자(15엽), 누(14엽), 너럭바위(2엽), 산봉우리(10엽)의 순이다. 내려보다라는 조망행동은 대개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이나 절벽바위 위에 세워진 정(亭)과 같은 건축물에서 수면이나 들 등 낮은 곳의 풍경을 조망할 때의 행동이다.

3) 바라보다

바라보다는 배 위(33엽), 길(24엽), 정자(24엽), 누(19엽), 대(12엽)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산마루에서 멀리 펼쳐진 병풍처럼 펼쳐진 금강산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경우나 나무터에서 강변의 마을과 강 위에 떠있는 배를 보는 경우와 같이 공간적으로 시선의 확장이 가능한 곳에서 바라보다라는 조망행동이 유발되기 쉽다.

4) 둘러보다

둘러보다는 정자(16엽), 산봉우리(10엽)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금강산의 주봉(主峰)인 비로봉(毘盧峰)과 같이 모든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산의 정상부나 교량, 바위절벽 위에 지어진 정(亭)이나 각(閣)등에서 둘러보는 조망행위가 나타난다. 둘러보다라는 조망행동은 관찰자가 주위의 정보를 계기적으로 축적하는 행동이므로 산봉우리와 같은 시계가 탁월한 장소에서는 관찰자가 정위하고 있는 장소와 다른 장소와의 관계 즉, 지리감각을 획득하기 쉽다.

5) 언뜻 보다, 지나쳐보다

이동하는 길 위에서나 배 위에서는 시점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속도로 조망대상도 스쳐지나 간다. 이 때 경관을 응시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취하는 것이 '언뜻 보다 혹은 지나쳐보다'라는 조망행동이다.

이런 조망행동은 길(29엽)과 배(33엽)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6) 넘어보다

'넘어보다'는 누(11엽), 정자(6엽) 등 건조물 안에서 외부로 바라볼 때 취하는 조망행동이다. 건조물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건조물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 예를 들면 담이나 수목 등으로 시계가 차단된다. 시계가 장애물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거리의 연속감도 담이나 수목에서 차단된다. 멀리 보이는 경관은 거리적 연속감이 상실된 채로 차단물 바로 뒤에 보이게 되어 마치 바로 뒤에 있는 경물로 보인다. 이 때 체험하는 경관을 차경이라고 한다.

7) 사이로 보다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조망점은 길(15엽), 정자(14엽), 누(11엽)의 순이다. 길에서 있는 숲의 나무 기둥이나 가지사이로 바라보거나 시선 가까이 존재하는 암벽 사이로 바라보는 절경들을 체험할 때 이러한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로 보다라는 조망행동에는 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역시 멀리 있는 경물과의 거리감이 상실되어 보여 넘어보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경을 체험한다.

8) 마주보다

마주보다라는 조망행동은 배(30엽), 길(14엽), 정자(12엽), 누(12엽)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와 저기로 구분된 공간에서 저기에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 시선을 교응하는 행위이다. 와유를 유발하기 쉬운 조망행동이다. 이상과 같이 경관이 발생하기 쉬운 조망점과 그 장소에 특화된 조망행동이 추출되었다. 이 연구의 성과는 경관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조망점(시점장)의 선정과 조망행동에 조응한 시점장의 공간 설계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추출된 조망점에 특화된 조망행동과 공간설계 수법은 금후 보다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그 경관설계 수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언해둔다.

- 주 1. 然則林泉之志烟霞之侶夢寐在焉耳目斷絕今得妙手鬱然出之不下堂筵坐窮泉壑(중략)此世之所以貴夫畫山水之本意
- 주 2. 황기원(1992: 165-166)에 따르면 臥遊는 중국 남조 송대의 화가 宗炳(375-443)이 「畫山水序」에서 제시한 것으로 누워서 유람한다는 의미다. 그가 말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늪음과 질병이 함께 찾아오니 명산을 두루 유람하기가 어렵겠구나. 오로지 마음을 맑게 하고 도를 체관 하면서 누운 채 이를 유람해야겠구나”라고 말 한 것을 두고 후에 산수화의 효용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 황기원(1992: 166)은 觀화가 坐窮이라는 개념으로 이 와유의 효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 주 3. 山之人物以標道路山之樓觀以標勝
- 주 4. 水之津筏橋約以足人事 水之漁艇釣竿以足人意
- 주 5. 산수화를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난 조망행동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산수화라고 하는 시각매체의 감상법과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와유와의 관계이다. 산수화의 감상법으로는 王伯敏이 제안한 7가지 관찰방법(七觀法)이 있다(王伯敏, 1980, 강관중 역, 1991). 그것은 1. 걸음걸음마다 보는 방법, 2. 여러 면을 보는 방법, 3.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 4. 멀리 떨어져 보는 방법, 5. 가까이 끌어당겨 보는 방법, 6. 시점을 옮겨서 보는 방법, 7. 육원을 결합하여 보는 방법이다. 이 7가지 방법은 산수화를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의 이동과 의식야의 집중 부위, 그리고 산수화 특유의 화법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수화를 화면 바깥에서 시선과 의식야의 신축을 통한 감상법을 교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산수화 속에 들어가 그 속을 거니는 듯한 태도로 그 풍경을 감상하였을 때 대리의 자기의 시선

방향, 즉 조망행동을 추출하고 있다. 따라서 7관법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산수화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인용문헌

1. 강영조, 中村良夫, 濟藤 潮(1999) 경관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3): 39-49.
2. 강영조(2001a) 소재원 48영에 보는 경관체험 평가의 원천. 한국정원학회지 19(1): 62-73.
3. 강영조(2001b) 자아영역의 경관디자인 수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퇴계 이황의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을 사례로. 한국정원학회지 19(3): 40-50.
4. 유홍준(2001) 화인열전. 서울: 역사비평사.
5. 최완수(1993)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서울: 범우사.
6. 황기원(1987)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7. 황기원(1992) 「임천고치(林泉高致)」에 나타난 觀화의 자연관. 환경논총 30(1): 152-191.
8. 中村良夫(1981) 景觀知覺および評價に關する基礎的研究. 文部省科學研究費綜合研究(A), pp. 82-86.
9. 中村良夫(1982) 大地の低視點透視像の景觀論的特質について. 土木學會論文集 I, pp. 1-10.
10. 中村良夫(1982) 景觀論. 土木工學大系 13. 일본: 彰國社.
11. Shinohara Osamu(1982) 土木景觀計劃. 新体系土木工學 59. 일본: 技報堂.
12. 小林亨(1991) 氣象現象に伴う景觀に關する研究. 東京工業大學學位論文.
13. 郭熙(1020?-1090?) 林泉高致. 허영환(역) 임천고치. 서울: 열화당, 1989.
14. 王伯敏(1980) 中國畫的構圖. 강관식(역) 동양화구도론. 서울: 미진사, 1991.

원고접수: 2002년 8월 2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10월 9일

3인익명 심사필

부록 2. 진경산수화에서 관찰된 조망행동

(부록 2. 계속)

일련 번호	작품명	조망행동*							
		1	2	3	4	5	6	7	8
1	楓岳內山摠覽	●	●	●	●	●	●	●	●
2	斷髮嶺望金剛山	●	●	●	●	●	●	●	●
3	金剛內山總圖	●	●	●	●	●		●	
4	長安寺	●	●	●	●	●	●	●	●
5	百川洞		●	●	●	●			
6	萬瀑洞		●	●	●			●	●
7	金剛臺		●	●					
8	正陽寺		●	●	●		●	●	
9	普德窟		●	●	●	●	●	●	
10	穴望峰		●	●	●				
11	毘盧峯		●	●	●				
12	佛頂臺		●	●	●			●	
13	九龍淵	●	●	●					
14	百川橋	●	●	●	●			●	●
15	海山亭		●	●	●		●	●	
16	七星巖	●		●	●	●		●	
17	海金剛	●		●	●	●		●	
18	三日浦		●	●	●	●		●	●
19	門岩觀日出		●	●					
20	瓮遷		●	●		●			●
21	通川門岩	●		●		●		●	
22	叢石亭	●	●	●	●	●		●	●
23	龍貢洞口	●	●	●	●	●		●	
24	千佛岩	●	●	●				●	
25	侍中臺			●		●			●
26	清澗亭		●	●	●	●		●	
27	洛山寺	●	●	●	●	●		●	●
28	竹西樓	●	●	●	●	●		●	●
29	望洋亭	●	●	●	●	●		●	
30	越松亭		●	●	●	●	●		●
31	水泰寺洞口		●	●	●			●	
32	錄雲灘			●	●	●	●		
33	獨栢灘	●	●	●	●	●		●	●
34	牛川		●	●	●	●		●	●
35	石室書院	●	●	●	●	●		●	●
36	三洲三山閣		●	●	●	●		●	●
37	庚津	●	●	●	●	●		●	●
38	松坡津		●	●	●	●	●	●	●
39	押鷗亭	●	●	●	●	●		●	●
40	木覓朝墩			●	●	●		●	
41	鞍峴夕烽		●	●	●	●		●	●
42	孔岩層塔	●	●	●	●	●		●	●
43	錦城平沙		●	●	●	●		●	●
44	楊花喚渡			●	●	●			●
45	杏湖觀漁		●	●	●	●	●	●	●
46	宗海聽潮		●	●	●	●	●	●	●
47	小岳候月		●					●	
48	雪坪騎驢			●		●		●	
49	水遷負薪			●		●			
50	陽川縣衙			●			●	●	

51	開花寺	●	●	●	●	●		●	●	
52	寺門脫囊					●	●		●	
53	楊齋題詩			●				●		
54	詩畫相看			●						
55	二水亭	●	●	●	●	●		●	●	
56	銅雀津		●	●	●	●		●	●	
57	清風溪	●	●	●	●	●	●	●	●	
58	長安烟雨			●				●		
59	仁谷幽居			●				●		
60	仁谷精舍			●				●	●	
61	讀書餘暇			●						
62	楓溪遺宅			●	●			●	●	
63	白雲洞	●	●	●		●	●	●	●	
64	彰義門	●	●	●	●	●		●		
65	紫霞洞			●	●			●	●	
66	聽松堂		●	●	●	●		●	●	
67	大隱岩			●				●	●	
68	隱岩東麓			●				●		
69	獨樂亭		●	●	●	●		●		
70	翠微臺			●	●			●		
71	仁王霽色			●				●		
72	玉洞步崗		●	●	●			●		
73	三勝亭	●	●	●	●	●		●	●	
74	三勝眺望	●	●	●	●			●		
75	晴暉閣	●	●	●	●	●		●		
76	水聲洞	●	●	●	●			●		
77	鐘雲臺	●	●	●	●			●	●	
78	景福宮		●	●	●			●	●	
79	水鏡山		●	●	●					
80	東小門		●	●	●	●		●		
81	洗劍亭		●	●	●	●		●		
82	羽化登船	●	●	●	●	●		●	●	
83	熊巖繫纜	●	●	●	●	●		●	●	
84	朴生淵	●	●	●	●	●		●	●	
85	禾積淵	●		●	●			●		
86	三釜淵	●		●	●			●		
87	花江植田			●						
88	披襟亭			●	●	●		●	●	
89	亭子淵			●	●	●		●	●	
90	聖留窟	●		●		●		●		
91	舞鳳山中			●	●			●		
92	丹旻泛舟	●	●	●	●	●		●	●	
93	龜潭	●		●	●	●		●		
94	寒碧樓			●				●	●	
95	林川鼓岩			●	●	●		●	●	
96	雙溪立岩	●	●	●						
97	溪上靜居		●	●	●	●		●	●	
98	陶山書院	●	●	●	●	●		●	●	
99	內廷三龍湫	●	●	●	●	●		●		
100	海印寺	●	●	●	●	●	●	●		
합계			42	66	99	73	62	24	79	46

*: 1:올려보다; 2: 내려보다; 3:바라보다; 4: 둘러보다;
5:언뜻 보다; 6: 넘어보다; 7: 사이로 보다; 8: 마주보다